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3호 【루계 제25256호】 주체105(2016)년 4월 22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는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의 결정적담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함경남도, 황해북도, 라선시대표회 진행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장을 향한 충정의 70일전투가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함경남도, 황해북도, 라선시대표회가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대표회장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표회장들의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들에 나붙어있었다.

대표회들에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백전백승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위원회사업을 총화하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대표회에서는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도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당 제6차대회의 전투적과업과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 모자이크영상작품들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들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신흥군과 부전군에서 수많은 구호문헌들과 혁명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여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도에 주신 유훈을 빠짐없이 정립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검덕광업련합기업소와 홍남대경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고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신흥군의 한현경학생과 단천시 인민보안원들과 같이 수령절사용위의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충신들이 수많이 배출된것은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꾸리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보고자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공업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농산과 축산, 수산, 과수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공장과 읍,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맹렬하게 벌림으로써 도의 전반사업이 활력에 넘쳐 추진되고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대표회에서는 박대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령도의 나날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불멸의 현지지도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며 부강조국건설의 높은 령마루에로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사업에 티없이 깨끗한 지성을 바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의 정당성을 심장깊이 새긴 도안의 인민들이 지난 기간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였으며 침예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한원하여 자주적근위병들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틀어쥐고 5대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참된 선군혁명동지로, 열렬한 애국심과 투철한 반제투쟁정신을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키였다.

보고자는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뽑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4년간 당의 령도밑에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70일전투의 나날 주체철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났으며 상반년 계획,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이 늘어난것을 비롯하여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라선시대표회에서는 림경만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시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총궐기, 총발동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어떠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켰으며 라진항과 선봉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절사관철하는 모범을 창조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 조국땅 한끝에서도 수령절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가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며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힘을 넣어 각계층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라선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차례나 머나먼 하늘길, 때길을 달려 큰 물피해를 입은 시를 찾으시여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라선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던 나날에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신념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더욱더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과업들이 토의결정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검사위원회사업을 총화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위원회 지도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와 방청자추천이 있었다.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들이 있었다.

추대사들에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위대한 승리와 대비약적혁신으로 수놓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등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비상히 독창적이며 변혁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필승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절출한 정치가이시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을 종횡무진하시며 주체적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군술에 의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이 물거품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철의 신념과 담대한 배짱, 단호한 결단성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현에 높이 올려세우신것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지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추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전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면서 최근년간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추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틀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품속에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날에날마다 불려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시며 만제자주의 기치높이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고계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와 조국통일의 새날을 내다보고있으며 무궁토록 번영할 백두산대국의 앙양한 전도를 확신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고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절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대통운이며 크나큰 영광이다.

추대사들에서는 전체 대표회참가자들과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하면서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항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존엄떨치고있으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위용이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관점과 일본새가 일신되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희한한 사변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는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의 확고한 담보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표회장들은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이 터쳐올린 우리와 같은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오래동안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표회들에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하고있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와 방청자로 선거, 추천되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 황해북도, 라선시대표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회합이였다.

황해북도당대표회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당신이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그에 대한 높은 경모의 정을 담은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수리아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우리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언하면서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로를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당신과 수리아아랍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5(2016)년 4월 21일 평양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몽골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3일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결성식에는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몽골김정일화협회,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과 백두산3대장군의 존함을 모신 단위들, 주체사상연구조직의 인사들 그리고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 총재 쓰. 쑤덴자브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몽골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4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때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몽골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끝없이 경모하는 위인들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 즈. 롬보가, 부위원장들로 몽골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장 브. 바이갈마와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위원장 쓰. 오윤체체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위대한 수령님의 몽골 첫 방문 60돐과 다음해 태양절, 광명성절에 즈음한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수도와 지방에서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3월 22일 프랑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기 듀프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동구호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가리라 필승의 넋을 안겨주는 백두산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장 그 어디서나 우리 인민들이 새 세기의 백두산행군가라고 궁지높이 말하는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더불어 더욱 높이 울리는 이 노래가 시대와 력사앞에 새겨주는 의미는 비상히 크다.

지난해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고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귀중한 금언을 심장깊이 새기며 우리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혁명의 성산으로 오르면서 우리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에 담긴 깊은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혁명의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사나운 눈발이 앞을 가리우는 칼바람을 맞으면서 오르는 백두산길은 결코 헐치 않았다.

허리치는 눈, 뼈속까지 스며드는 모진 추위, 맹렬히 불어치는 맵짠 눈보라…

백두산에 올라야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고 조선혁명의 력사를 알게 된다고 쉽게 해오던 이 말에 얼마나 값비싼 혁명의 진리가 무겁게 실려있는가를 우리는 눈보라를 맞받아 걸어야 하는 백두의 행군길에서 귀중한 체험으로 깨달았다.

백두의 행군길,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담겨있는 혁명의 길인가.

우리의 눈앞에 주체89(2000)년 3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그때 여러날에 걸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메아리쳐 울리는듯싶은 백두전구의 밀림이 항일전의 피어린 력사를 숭엄히 펼쳐보이는것만 같았다.

사나운 칼바람에 껍질마저 허갈라진 나무들이 혁명의 간고성을 깨우쳐주고 흰갈기를 날리면서 휘뿌리는 눈보라가 사령부를 보위하여 적들을 맞받아나가던 빨찌산대원들의 백포자락을 련상시켰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마저 유격대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로 여겨졌고 밀림을 뒤덮은 정갈한 흰눈은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던 투사들의 깨끗한 넋으로 안겨들었다.

이렇게 마련된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혁명전통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고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에 의하여 제시된 과학적인 전략전술이고 수령이 창조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전통이야말로 당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고 백전백승을 담보하는 피줄기이고 만년재보이기에 혁명의 원쑤들은 력사적으로 제일먼저 당의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고 훼손시키는데 음모의 촉수를 뻗치였으며 갖은 비렬하고 악랄한짓을 다하였다.

바로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에서 개척된 백두의 행군길이 아니였던가.

우리는 솨솨 폭풍쳐 설레이는 밀림속을 걸으며 준엄했던 주체45(1956)년을 생각하였다.

밖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날치고 안에서는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쏠라닥거리면서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까지 책동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우리 혁명의 명맥을 어째보려는자들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징벌하시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의 전장에서 백두의 눈보라맛부터 먼저 아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한평생 백두의 칼바람, 백두의 설한풍이 멎어본적 없었다.

백두산이 안고있는 어버이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이의 한생에 휘몰아친 백두의 눈보라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폭풍치도록 하시고 혁명의 붉은기높이 백두의 혁명전통,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자신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백두의 칼바람길을 걸으시며 온 나라를 여기 백두산에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에도 백두산전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천만군민이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백두산바람이 불과 몇해사이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내 조국의 젊음을 더해주었고 그이께서 몸소 맞으신 백두의 칼바람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휘몰아쳐 지구관측위성발사와 같은 민족사적대경사가 펼쳐진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속에 거연히 솟아오르는 태돈이를 바라보며 백두산태돈이처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여기 혁명의 성산에서 계속 뿌리내리나와 온 나라를 불게 정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백두의 붉은 기록이 휘날리는것만 같은 태돈이장판에 심취될수록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수령을 알고 조국을 알게 되며 혁명을 락관하고 미래를 믿게 된다는 철리가 폐부로 안겨들었다.

정녕 백두산은 조선이 낳은 절출한 령장들의 위대한 상징이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충정의 행로,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성스러운 로정이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혁명의 칼바람길이다.

그렇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높뛰는 우리의 혁명전통은 결코 흘러간 력사의 추억이나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혁명의 올바른이한 피줄기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만년재보로 되여 백두의 넋을 끊임없이 뿌려주고있다.

누구나 한두번이 아니라 열번이고 백번이고 한생토록 올라가보아야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수 있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일수 있다.

뜻깊은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도 필승의 넋을 안겨주는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에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변함이 없이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며 영원히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에 최후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백두산이 혁명의 칼바람으로 이 땅의 천만군민을 소리쳐부르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혁명승리의 만년보검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짱을 억세게 벼리며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라고.

본사기자 김준혁

혁명의 명맥이고 피줄기이기에

두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줄 혁명의 1세들인 항일혁명투사들도 몇명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다녀가신 후 이곳으로는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이 더더욱 뜨겁게 흐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혁명의 명맥이고 피줄기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려는 순결한 마음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억척같이 떠받들고있는것이다.

마두산혁명전적지뿐아니라 온 나라 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 혁명사적비와 현지지도사적비, 현지지도표식비들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마음은 뜨겁게 흐르고있으며 그 언제나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소중히 놓이군 한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 가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와 현지지도사적비, 현지지도표식비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고장과 시기는 다르고 내용과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거룩한 령도업적, 고매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 투쟁경험과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것이 당의 혁명전통이며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되는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의 혁명사적이자 혁명전통의 내용을 이룬다고도 할수 있다.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백두산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더불어 나날이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그 거룩한 자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 다름아닌 혁명사적비와 현지지도사적비, 현지지도표식비인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이 땅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처음으로 모셔지고 첫 혁명사적비와 현지지도사적비, 현지지도표식비가 선때로부터 대를 이어가며 자기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여기에 바쳐왔으며 그 나날은 곧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는 과정으로 되였다.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총정의 7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칠야진군길에서도 온 나라 그 어디에나 정중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 혁명사적비와 현지지도사적비, 현지지도표식비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끊임없이 굽이치고있으며 순결한 그 마음과 더불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은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바로 여기에 총정의 70일전투승리의 비결이 있기에,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명맥이고 피줄기이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은 이렇게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이렇게 인민의 심장속으로 맥맥히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냥 워라찟동지

나는 라오스민족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당신이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4월 21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월남, 몽골, 라오스, 네팔, 캄보자, 이란,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루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 5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행사장들의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도서 및 사진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태양의 꽃 김일성화》, 《조선의 총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대표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부수상과 하바롭스크변강립법회의 의원인 통일로씨야당 하바롭스크변강지역 정치리사회 1부비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주석의 위인적풍모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인 전 네팔정부 수상은 김일성주석은 네팔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공인하고 열렬히 경모하는 가장 위대한분이시다, 그이는 나의 스승, 친어버이이시다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때혹과 흠모심을 토로하였다.

캄보자 왕궁담당 부수상은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캄보자인민은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특기할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각하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란군 육군 부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이란무력 총지휘참모부를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와 친선적인 조선정부와 인민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전통교양의 전환기 1970년대의 나날에

만수대언덕은 길이 전하리

만수대대기념비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수령칭송, 수령흠모의 대기념비이다.

주체61(1972)년 3월 어느날이였다. 만수대대기념비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수도의 중심부 만수대언덕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대기념비를 세우는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이 잘 안겨올수 있게 동상대들의 높이를 바로 정하고 그 위치를 두개의 군상탑과 접근시킬데 대한 명안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좌우켠의 기념탑들에는 항일혁명투쟁편과 사회주의건설편 부주제조각군상들을 잘 형상하며 여기에 벽화와 건축형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념비미술의 종합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하나의 대기념비에 집대성하여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수대언덕은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유서깊은 회령은 지척이였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번째로 왕재산혁명사적지전설장을 찾으신 때였다. 그이를 모신 렬차가 회령을 가까이하고있었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렬차가 회령역에 들어서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회령! 하고 외우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이 창가림을 걷어올리시고 바깥을 내다보시였다.

일군들은 거듭 위대한 장군님께 이번 기회에만은 꼭 회령에 들려주실것을 간청드렸다.

그이께서는 차창가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시다가 조용하나 절절하신 음성으로 회령에 한번 들려보고싶다고, 그러나 아직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회령부터 들리겠는가고 하시며 사업이 모두 맞물려있으니 그냥 통과하자고 하시였다.

불멸의 자욱은 삼지연대기념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공을 앞둔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으시였던 주체68(1979)년 3월 21일은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궂은날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보시며 동상형상을 잘 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을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여 모시니 얼마나 좋은가고, 수령님의 동상 모심돌도 형상을 아주 잘하였다고 고향 회령에 한번도 들려보시지 못하시였으랴.

왕재산대기념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제막포를 벗기시고 수령님의 동상을 보아주시였다.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눈보라사나운 험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해빛이 잘 비치는 한낮에 보시고도 뭇별이 총총한 밤에 또다시 나와보시면서 아무때 봐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한 대기념비는 모든 면에서 만점이라고 그처럼 만족해하시였으랴.

본사기자 전광남

당원증의 무게를 심장에 새기고 살자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가슴끓이는 이 시각, 누구보다 신들메를 더 든든히 조여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조선로동당원, 불러볼수록 소중히 품고 사는 당원증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당원들은 누구나 당원이 된 긍지와 영예가 높았으며 정치적생명의 증표인 당원증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당원증,

그것이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의 증표이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닐것을 절절히 념원하며 당원증을 받는것을 한생의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성스러운 우리 당기발아래서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받던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넋으로 불타는 붉은 기록 우러러 터치던 신념의 맹세는 무엇이였던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한몸 다 바치리라!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대답하리라!

그래서였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당원증에 손을 얹으며 혁명의 전구에 용약 뛰여들어 자기의 피와 땀을 바치고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것은.

준엄한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언제나 변함없이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줄 알고 당을 결사옹위해나선 사람들은 누구들이였던가.

전화의 혼적이 력력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의 피묻은 당원증앞에 서보라.

그러면 영웅전사들의 넋이 살아숨쉬는 당원증이 말해줄것이다.

원쑤들의 맹폭격으로 바위마저 불타던 고지, 포연이 자욱한 전호가에 조용히 울리던 목소리.

《당원들은 모이시오.》

마지막결사전을 앞둔 그 시각 당원들은 당원증의 무게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였다. 당원증, 그것은 그들이 서야 할 위치를 가리켰다.

그래서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들고 선참으로 육박전에 뛰여들었고 팔다리는 부서졌어도 불사신마냥 수류탄을 입에 물고 육탄이 되여 적들속으로 굴러내린것 아니던가.

붉은 피가 슴배여있는 당원증들은 말해준다.

당원증, 그것은 심장속에 안고 사는 조국이고 수령의 품이라고.

당원증의 무게를 알면 절해고도에 홀로 있다 해도 신념의 기둥은 더 억세여지고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깊은 밤 령길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절절히 말하던 범동농민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올리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들을 결사적으로 수행해나간 신포향을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30여년간 옥중에서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억세게 지킨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

그들은 모두 당원증의 무게를 아는 혁명가들이였다.

《죽어도 당원증을 메고 죽고 당원증을 메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충정을 다하겠다.》

이것은 인민의 충복이 되여 한생을 불같이 살던 전천군상업관리소의 점춘실동무가 늘 심장속으로 외우던 말이다.

때로는 힘에 부쳐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가도 품고있는 당원증을 꺼내보며 백배의 용기를 가다듬어 당정책관철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참된 당원들은 과연 또 얼마였던가.

순결한 량심과 충정으로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고 당중앙을 옹위해나선 참된 당원들의 대군이 있어 내 조국이 더욱 굳건하고 억센것이 아니더냐.

당원증,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간에 맺어진 혈연의 피줄기이다.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광산에 파견되여 사업하고있던 한 소조원이 뜻하지 않은 일로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원쑤들의 총탄에 쓰러진 전사를 품에 안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며 슬픔을 금치 못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애써 누르시며 오래동안 방안을 거니시였다.

한발자국,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범한 한 소조원이 눈을 감으면서도 말 못하고 떠나간 절절한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그의 삶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이처럼 한없이 뜨겁고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혁명전사들의 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이 땅에는 영원한 혁명적동지애의 력사,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 숭고한 혈연적뉴대의 력사가 흐른다.

동해의 파도소리가 유정히 들려오는 나지막한 언덕에 안치되여있는 정범한 해군용사들의 묘앞에 서보자.

그러면 보게 되리라. 온넋으로 느끼게 되리라, 위대한 천출명장의 한없는 동지애의 세계,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를.

주실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시고도 해군용사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해군용사들의 마음속소원까지 깊이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 우리 천만장병들의 정치적생명의 위대한 은인이시라고.

조선로동당 당원증,

정녕 그것은 수령이 혁명전사들에게 안겨주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며 수령의 품에서 투쟁과 위훈으로 영생하려는 삶에 대한 증표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에 휘날려주시는 혁명의 붉은기이다.

오늘도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뜨겁게 안아보는 조선로동당 당원증,

그 당원증에는 실리여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혁명의 1세, 2세 당원들의 숭고한 넋이 우리 당원들을 지켜본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천리마시대를 안아온 전세대 당원들의 고귀한 당부가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전체 당원들을 격려해주고있다.

당원증의 무게를 심장에 새기고 70일전투에서 승리자가 되라!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 길에서 당원의 본분을 다하라!

본사기자 김일권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일떠세운 청년들의 투쟁과 위훈

심장의 붉은 피로 새긴 70일전투기록

총정의 70일전투의 결승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여기 백두전구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전력생산의 자랑찬 동음을 울릴 승리의 날을 앞당겨왔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질 혹한속에서도 굴함을 모르고 하루 수천, 최고 1만 수천여㎥의 흔석을 쌓아올리며 서두수하류에 신념의 언제,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운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의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한 백두청춘들이 백통치는 심장의 붉은 피로 새긴 총정의 70일전투기록을 마주하고있다.

지난 1월까지 공사장에서는 언제속벽기초굴착을 끝내고 3천여㎥의 콩크리트속벽타입을 진행하는 동시에 2만 3천여㎥의 언제를 축조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면 7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전투실적은 때가로 높아졌다.

2월 23일부터 3월 8일사이의 15일동안에 3만 7천여㎥의 언제쌓기공사를 진행하고 언제쌓기공사량의 58%계선을 돌파하였다.

언제쌓기공사에서 두달실적과 거의 맞먹는 방대한 공사량을 단보름동안에 해제끼는 새 기록이 세워질 때 3월 9일 2만여㎥의 토량을 굴착하고 4천여㎥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여야 하는 발전기실하부구조를 콩크리트타입공사가 완전결속되였다.

백두전역에서 2월이 지나가고 3월에도 강추위는 계속되였다.

불리한 조건에 맞게 현장편합지휘부에서는 기계수단들을 집중투입하고 새로운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굴착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고 콩크리트타입장들의 긴 구간에는 보온텃집들이 늘어섰다.

강추위가 대지를 땡땡 얼구고 칼바람, 눈보라에 온 천지가 하얗게 물들었지만 보온텃집에 싸인 작업장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3월 19일 14시부터 24시간동안에 1만 2천여㎥의 언제쌓기를 진행하여 또다시 새 기록을 돌파!

70일전투에 진입하여 이룩된 가장 높은 일실적의 4배이상에 달하는 이렇듯 자랑찬 최고공사실적이 기록되는 가운데 3월 24일 언제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가 끝나고 3월 31일에는 발전소언제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3호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모두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다.

우리 당의 믿음이란 축하문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옥탑이 되여 발전기실과 조압수조전물공사, 삼림집전설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립체전의 불길속에 하루 3 500여㎥에 달하는 지대정리작업이 진행되고 발전설비조립전투가 결속되였다.

무넘이언제의 수문천정기중기조립장과 옥외변전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가 비상한 속도로 추진되였으며 얼마전에는 발전기무부하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제일생명으로 간주하고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진격속도를 창조한 이곳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마련되는 자랑찬 성과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위훈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영웅청년신화가 백두대지에서 탄생하였음을 세상에 소리높이 떠칠 력사의 시작이 다가왔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백두전구의 별무리

감탄으로 돌변한 우려

황해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앞에 무넘이언제하류의 배수로가넘에 옹벽을 형성할데 대한 과제가 맡겨진것은 오전이였다. 작업량은 방대했다. 70여m의 구간에 수백㎥에 달하는 옹벽을 쌓아야 했던것이다. 아름찬 일감을 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우려는 몇시간만에 감탄으로 돌변하였다. 오전에 전투가 시작되여 배수로구간에 절사판철의 성새마냥 쌓여진 옹벽이 자태를 드러낸것은 하루해가 저물기도 전이였다.

3호발전소건설장에서 다리 및 원림공사, 지대정리를 비롯한 모든 공사가 번개같이 추진된 밑바탕에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이런 전투적인 일본새가 깃들어있다.

한전호에 선 모습

지난 11일 발전소건설장에 두 오누이가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만경대구역 당상2동 96인민반에 사는 청년들인 김경일, 김미영동무들이였다.

동생인 김미영동무에게는 지난 기간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 여러차례 지원한 자랑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많은 조명등을 마련해가지고 오빠와 함께 건설장으로 달려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나무도 정성다해 심어 공사에 참가한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없어서는 안될 보배

라남수력발전소 시공조직설계연구소 현장설계실 실장 홍정민, 홍경진동무들은 부자간이다.

삼수발전소건설때부터 북방의 여러 발전소건설과정에 어려운 시공설계를 수없이 맡아 해제낀 아버지인 홍정민동무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공사때 지방자재에 의한 구조물설계방안을 내놓아 2000여㎥의 세멘트와 수백t의 강재를 쓰지 않으면서 혼합물운반차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하여 나라에 커다란 리익을 주었다.

아들 홍경진동무는 지난해부터 3호발전소건설 현장편합지휘부 시공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어려운 공정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여 발전소건설장에 없으면 안될 보배라는 호평을 받았다.

백두의 칼바람속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솟아오른 대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으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창조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수력발전소건설력사의 전례를 깨뜨리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온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당 제7차대회전으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하기 위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맞고보낸 천신적투쟁의 분분초초는 그대로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부르며 백두청춘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로 다지고 불이 달린 화약처럼, 폭풍처럼 내달려온 기적의 순간순간이였다.

돌이켜보자. 누구나 휴식시간조차 아까와 골재채취장으로 발길을 돌리던 우리 백두청춘들의 모습을!

무거운 골재와 세멘트마대를 메고 경사진 발판을 오르내리기를 하루에도 몇번, 하지만 그 길에서 물러서는 돌격대원은 한명도 없었다. 어떤 때에는 화물자동차가 금방 부리운 골재를 넣은 마대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하여 잔등이 흠뻑 젖어들었지만 돌격대원들은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더 힘차게 전격해나갔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숙소로가 아니라 축조공사에 쓸 흔석운반에 달라붙은 돌격대원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지난 4월초 언제면정리와 라지단형성작업을 다그치던 함경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또 하나의 아름차고도 긴급한 과제를 받아안았다. 규모가 큰 조압수조전물의 아래부분인 비탈진 곳에 흙을 메우고 지대를 정리하는 공사였다. 경사급한 현장으로는 중기계도 들어설수 없었다. 그러한 곳으로 운반해야 할 토량은 실로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려단의 지휘판,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주춤할수 없었다. 기계가 들어설수 없으면 큰 산을 통채로 떠옮겨서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

치렬하다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토량운반전투가 진행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오직 승리만을 떨치는 공격정신으로 불가능이라는 말에 종지부를 찍으며 시간당 수백㎥의 흙을 운반하였고 단 하루만에 정리작업을 끝내고야말았다.

건설장의 어디서나 한눈에 안겨오는 곳에 당의 기본구호를 새기는 공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였던가.

구호를 새기게 될 한 구조물의 길이는 50여m!

이 공사과제는 려단이 달라붙어 최소한 한달은 걸려야 할 참억세게 성장한 백두청춘들의 심장의 붉은 피이다.

우리는 지금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 발전기실앞에 서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도 콩크리트골조만이 눈에 뜨이던 곳이였다.

바로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을 놀래우며 새 발전설비들이 들지게 들어앉았다.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까지 손색없이 꾸려진 발전기실에서 발전설비들의 무부하시운전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시간과 분이 다르게 위훈을 창조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합경북도려단과 련관단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위훈담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기초공사때부터 오늘까지 이들이 새겨온 로정은 걸음마다 대비약창조로 일관된 나날이였다. 이들은 북방의 낮은 대기온도를 비롯한 불리한 공사조건이 돌적로앞에 가로놓일 때마다 총정의 열도로 심장을 끓이며 새 기적창조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건물의 지상골조공사에 앞서 급은판을 틀어앉힐 기초를 형성할 때에는 콩크리트구조물을 철구조물로 대신하는 방법을 받아들여 20일은 걸려야 할 공정을 단 하루만에 추진하였다.

련이어 건물의 기둥들사이에 블로크로 벽체를 쌓을 때에도 앞선 공법을 도입하여 보통때보다 2.5배의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려단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이런 혁신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발전기실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도 최단기간에 결속하였다.

4월에 들어서면서 2층으로 되여있는 건물안의 발전기실과 배전장치실, 부속실을 비롯한 공사대상에 대한 마감공사때에도 이들은 시공력량이 부족한 속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열흘이상은 걸려야 할 건물의 내부마감공사를 불과 5일동안에 결속하였다.

발전기실에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위훈과 함께 련관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도 뜨겁게 슬배여있다.

건설전체공업성 책임일군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의 주타격대상인 발전기실건축공사와 발전설비조립전투기간 현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공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의 기수가 되였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계통의 통합조종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참으로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거창한 발전소가 일떠서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된것은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워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련관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이 시간과 분이 다르게 위훈을 창조하며 내달려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시간과 분이 다르게 창조된 위훈

발전기실건설전투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본우익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이 머리를 쳐들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오르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민족적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폭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규슈대지진을 계기로 또다시 벌어지고있는 일본국우익반동들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비렬한 여론조작책동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망령이 아직도 살아 배회하고있다는 증거로서 총련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못할 우롱이며 로골적인 적대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1923년 간토대지진때의 조선인대학살을 재현하려는 일본반동세력들의 악의에 찬 모략책동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망동은 체질적으로 고질화된 일본정부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연장선에서 빚어진것으로서 아베정권의 광란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지금 아베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적대행위들을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우리 총련일군들의 조국방문을 차단하고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책동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본당국은 울치하고 너절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침해를 묵인조장시키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21일
평 양

괴뢰패당의 비렬한 산림방화도발책동은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담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기상에 질겁한 괴뢰패당이 우리측 산림지역에 화재발생기구를 날려보내는 비렬한 범죄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며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 남애리와 온정리 등 금강산지구와 황해남도 안악군 한월리지역에서 인화성물질과 시간계전기, 전기기폭장치들이 들어있는 기구들이 발견되였다.

우리 전문기관이 조사한데 의하면 설정된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게 되여있는 이 기구들은 괴뢰패당이 우리측지역에 산불을 일으키기 위해 날려보낸것으로 판명되였다.

이것은 통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이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부리다 못해 산불을 일으켜 우리에게 막대한 물질적피해와 환경재난까지 들씌워보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은 민족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재부인 나라의 산림에 감히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만고역적 박근혜패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반인도적, 반인륜적흉악범죄행위를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담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애국의 호소따라 산림복구를 지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우리측지역에 산불발생기구들을 마구 살포하고있는것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산림복구전투에 저해를 주고 장성국가건설을 방해하려는 극히 악랄한 도발책동이며 후대범죄행위이다.

력대 남조선괴뢰통치배들치고 통족대결에 매달리며 못되게 놀아대지 않은적이 없었지만 박근혜패당처럼 전시도 아닌 때에 민족의 삶의 터전인 강토에 불까지 지르려고 지랄발광한 패륜의 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역적패당의 추악하고 비렬한 범죄적망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앙된 분노와 증오심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온 민족은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악녀, 추악한 민족반역자인 박근혜년과 그 일당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세워 단호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만일 박근혜역적패당이 너절한 산림방화도발책동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있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21일
평 양

남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경치좋은 서해의 항구문화도시에 보육 및 교육교양조건과 환경이 최고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남포육아원, 애육원이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된 남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였다.

남포시안의 당, 정권, 경제기관 일군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장양모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완공된 남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새로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퍼주시며 제일로 사랑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이 마련해준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안겨주시고 남포시에도 아이들의 궁전을 일떠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시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제일화하고 원아들의 친부모, 훌륭한 교육자가 되여 그들을 명랑하고 건강하게 키울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건물과 시설, 비품들을 애호관리하고 보건위생학적요구와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육아원, 애육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길이 빛을 뿌리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은 중앙홀들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섰다.

참가자들은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을 누려갈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었다.

이어 그들은 훌륭히 꾸려진 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43만t의 중요물동 증송

평양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당 제7차대회장에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평양철도국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43만t의 중요물동을 증송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 3월 1일에 기록된 122.8%의 수송실적이 한주일만에는 130.8%로 올랐고 3월 20일에는 147.7%, 4월 19일현재 155.8%의 수준으로 비약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평양철도국 수송전사들은 전화의 나날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전시수송을 보장하였던 1950년대 수송전사들처럼 오늘날 또다시 우리 천만군민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가련한 주구 박근혜역적패당을 기관차로 짤아뭉개는 기관사들속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한 밑불로 되였다. 지난 3월 12일 하루동안에만도 24명의 기관사들속에서 이룩된 성과는 그대로 련대적혁신의 불씨로 되여 철도국적인 증송실적으로 이어졌다.

평양조차장역, 신성천역, 강동역이 지난 3월 23일에 상반년 화물수송계획을 115.6%, 100.8%, 108.5%로 넘쳐 수행한데 이어 100여개 역들이 년간, 70일전투목표를 결속하였으며 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새로운 가열도장방법을 도입한 객차가열도장고전설이 단 열흘만에 끝나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기관사들이 70일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전례드문 성과가 이룩되였다. 기관사들속에서 이룩된 성과는 그대로 련대적혁신의 불씨로 되여 철도국적인 증송실적으로 이어졌다.

평양조차장역, 신성천역, 강동역이 지난 3월 23일에 상반년 화물수송계획을 115.6%, 100.8%, 108.5%로 넘쳐 수행한데 이어 100여개 역들이 년간, 70일전투목표를 결속하였으며 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새로운 가열도장방법을 도입한 객차가열도장고전설이 단 열흘만에 끝나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기관차승무원들이 자기들이 맡고있는 중요물동수송외에 자진하여 소운전, 차갈이를 진행함으로써 8200여t의 물동을 더 수송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더 많은 일감을 찾아 맞받아나가는 투철한 공격정신, 불보다 뜨거운 애국심이 발휘되는 속에 리영진, 김청혁, 원용활, 리필수동무를 비롯한 20명의 기관사들이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다.

금 금 한

대를 이어 수령의 유훈을 지켜가는 산골마을의 참된 보건일군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3대혁명붉은기 중화군 룡산리인민병원 원장 공훈의사 최순옥동무에 대한 이야기

중화군 룡산리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산뿐인 산골동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골에 농촌리인민병원의 본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 버 지 와 딸

한밤중에 룡산리라는 지명과 50리라는 리정만을 알고 중화군 읍에서 떠난 우리의 취재차는 그만 길을 잃고말았다. 우중충한 산들에 묻혀 마을은 깊이 잠들고있었다. 룡산리인민병원에 전화를 하니 친절한 목소리가 청높이 들려왔다.

《불빛이 제일 밝은 곳을 찾아오십시오.》

정말로 불빛이 제일 밝은 곳을 찾아가니 《룡산리인민병원》이라는 현판밑에서 한 녀인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마중하였다. 그가 바로 원장 최순옥동무였다.

무슨 일이든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이다. 어떻게 되여 이런 산골병원에서 한생일하게 되였는가 하는 우리의 첫 물음에 최순옥동무는 병원현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을 가리켰다.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할데 대한 교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하신 교시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령님의 이 교시를 집행하기 위해 한생을 바친 산골마을의 리인민병원 원장이였습니다.》

최순옥동무의 고향은 해산시의 산골마을인 운흥리였다. 그 운흥리에서 아버지는 한평생 진료소 소장으로, 리인민병원 원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최순옥동무가 17살 나던 해인 1979년, 운흥리에 당시 산골마을들에서는 보기 드문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들어섰다. 산골마을사람들이 너도나도 구름처럼 밀려와 구급차를 층층 에워쌌다. 수도 평양에서부터 구급차를 타고 빌고빈 길을 달려온 최순옥동무의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로 화락 젖어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는데 삽시에 온 산골마을이 목메인 만세소리로 뒤흔들렸다.

바로 몇해전, 전국보건일군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운흥리의 진료소 소장이였던 아버지에게 산골진료소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며 꾸밈없는 대답을 사려깊게 다 들어주시고 뜨거운 온정이 어린 교시를 주시였다.

그날의 그 온정속에 마련된 펜트겐과 치파의료설비들까지 싣고 산골마을에 와닿은 사랑의 구급차를 온 동네가 어루쓸고 또 쓸며 수령님 이야기로 밤을 밝히던 그날의 광경은 꿈많은 소녀였던 최순옥동무의 망막속에 일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화폭으로 깊이깊이 새겨졌다.

《우리 고장같은 산골농촌의 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 문제를 당대회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두메산골에 구급차까지 보내주시는 우리 수령님 같으신 어버이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니. 내 기어이 리병원화를 실현하고 그이께 보고드리련다. 운흥리 주민들의 건강은 념려마시라고 말이다.》

잊지 못할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구급차의 경적소리, 발동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살았다.

리진료소를 병원화하려면 의사와 의약품, 의료기구가 많아야 하며 전문도 더 지어야 할뿐만아니라 해산실을 잘 꾸리고 녀성들이 거기에 와서 해산하게 한 다음 치료를 잘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아버지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치과는 물론 펜트겐파와 실험실, 입원실들을 갖춘 병원을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웠다. 사랑의 구급차는 아버지의 심장과도 같았고 리인민병원은 아버지의 정든 집이였다.

최순옥동무가 보건일군의 첫걸음을 떼던 날 아버지는 고려치료는 아주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셨다고, 큰 병원과 멀리 떨어진 산골농촌의 의사일수록 고려치료로 만병을 고칠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새 침통을 안겨주었다. 처음으로 침놓는 법을 배워주던 그날 아버지는 호박을 가지고 마주앉은 딸을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다.

《호박이 사람이냐? 의사는 환자의 몸을 제 몸처럼 여겨야 한다.》

제손으로 자기 몸에 침을 찌르면서 침술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연해진 순옥의 앞에 전화의 나날 용감한 처녀보잡이군이였던 어머니가 한걸음 나앉았다. 《제가 맞으면 되지.》

아버지는 늘 말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자를 매매 진찰해서 구해낸 탑으로 진단을 바로 내리고 친혈육의 정성을 쏟아부어 치료할 때 못 고칠 병이 없다. 의사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혁명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남편을 따라 새 고장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던 날 아버지는 그에게 붉은 루쟁의 두툼한 책 한권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전염병 붉은 루쟁의 책도 펼쳐들었다. 그가 룡산땅에 뿌리내린 1992년부터 룡산리에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모시고 스물네해째 아버지처럼 정히 등록하고있는 기록장이였다.

산골마을의 두 리인민병원 원장이 대를 이어가며 량심의 총화로 새겨가고있는 유훈판철의 기록장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의 유훈판철전이라는 그 고귀한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지 않을수 없었다.

2002년 최순옥동무는 전국보건일군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수십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안고 고난의 행군시기 10년동안 우리 피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긍지높이 토로할 때 그의 심장은 얼마나 격정으로 끓었던가.

그해 그는 조선로동당원이 되였고 이듬해에는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았다. 최순옥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당원의 영예를 지닌 날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로당원이며 오랜 보건일군이였던 아버지였다.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를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친 어제날의 리인민병원 원장이 딸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이였던가.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라는것은 5차 당대회에서 주신 우리 수령님의 교시다, 똑… 그대로… 하거라.》

이렇게 최순옥동무는 천리마시대 참된 보건일군이였던 아버지에게서 그 어떤 비방이나 의술을 넘겨받기 전에 당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유산으로 소중히 이어받았다.

인민이 존경하는 명의사

《예로부터 일러오기를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지만 난 80평생에 자식도 아닌 의사가 님의 긴병에 효녀가 되는것을 봤수다.》

룡산리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윤동명로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의 안해는 오랜 세월 고질적인 질병으로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환자였다. 주변사람들은 물론 환자자신도 이제는 생이 결딴났다고 맥을 놓고있었지만 마을에 새로 온 젊은 녀의사만은 이악하게 치료에 달라붙었다. 10여년세월 매일같이 10여리길을 오가며 환자에게 침과 뜸을 놓고 고려약을 달여먹였는데 그 정성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해가 바뀔수록 더 절절해졌다.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친정어머니와도 같이 극진히 치료해주며 하루가 멀다하게 왕진의 발길을 걷는 녀의사를 기다리며 환자인 할머니는 그 10여년세월 매일 저녁 부뚜막우에 따끈한 밥그릇을 따로 올려놓군 하였다. 최순옥동무는 할머니에게 혹시 내가 오지 못할수도 있는데 왜 매일 밥을 떠놓는가고 물어보았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음이 하루라도 끊을가봐요. 선생님의 치료보다도 딸보다 더 극진한 그 정성이 날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줍니다.》

예순살을 넘기면 다행이라던 그 할머니가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할머니는 그날 자식들이 마련해준 옷감을 생명의 은인인 의사선생님에게 안겨주었다.

룡산리에 고려치료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용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은 더 많이 찾아왔다. 뇌출혈, 뇌혈전으로 제대로 운신 못하던 반신마비환자들이 그의 손끝에서 완치되여 일터에 다시 서게 되였는데 그들속에는 교수, 박사들도 있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라는 말부터 먼저 배우면서 자란 어린 두 자식들과 함께 간 날보다 그에게는 환자들의 침상에서 지새운 날이 더 많았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깊은 밤에도 최순옥동무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에 문득 귀를 강구더니 《나를 찾아오는 소리예요. 절골에 해산예정일이 다된 산모가 있거던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이였다.

밤이면 막 쏘고 저려나는 손가락매듭마다에 제손으로 뜸을 뜨며 출근길에 오르던 나날 그를 찾아온 환자들속에는 심한 뇌경색에 의한 반신마비로 고생하는 3살 난 대현이라는 어린이도 있었다. 부모도 포기한 어린이의 병상태를 보았을 때 최순옥동무의 가슴을 뭉뭉 두드린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체 어린이들의 보육원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우리가 보육원구실을 책임적으로 잘하여 어린이들을 뼈가 굵고 키가 크고 몸이 튼튼하게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였다고 한다. 룡산리아이들의 건강은 내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최순옥원장의 비상한 각오는 산골마을의 리인민병원에서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대현어린이는 20여일만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였고 몇년후에는 공연무대에서 명랑하게 노래를 부를수 있게 되였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기뻐했지만 오직 한사람 최순옥동무만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며 눈물흘렸다고 한다.

(대현아, 너는 이 의사선생을 잊어도 좋지만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은덕은 부디 잊지 말아라.)

자식을 업고 먼길을 온 곡산군의 한 주민은 최순옥원장을 만나는 첫 순간에 이런 눈물겨운 목소리로 부탁했다고 한다.

《선생님, 이애한테서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듣게 해줄수 없습니까?》

나서부터 크게 울지 못했다는 영명이, 어린이뇌성마비로 심한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운동장애를 받고있는 그는 12살이 되도록 부모가 한시도 마음을 못 놓고 보양하는 애기 아닌 애기였다. 부모가 마지막희망을 안고 맡겼던 자식을 나마저도 치료하지 못한다면 하는 생각에 이르자 최순옥동무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대현어린이의 밝고 씩씩한 노래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오는 그 순간 최순옥동무는 영명이가 마치도 제살붙이처럼 어겨져 스스로 자기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당원 최순옥동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한다던 불치의 병들도 다 고쳐내던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이, 아버지가 지켜보고있어. 청력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는 영명이를 품어안았다.

본격적인 치료속에 하루종일 흘러던 침이 멎고 차츰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기억중추가 살아났다. 마비되였던 손에 힘이 오기 시작하자 글자를 그릴수 있게 되였다. 한달만에 최순옥동무는 영명이의 방에 가갸표를 붙여놓았다. 아직은 철부지라 아픔을 참지 못하는 어린것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침치료를 마치고나면 최순옥동무의 온몸은 꼴주머니가 되여버렸다. 하지만 그는 땀도 닦을새없이 치료전투에서 학습전투에로 넘어갔다.

지시봉을 든 순옥은 가갸표의 글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쉬치다실이 읽었다. 《가, 갸, 거, 겨…》

그러면 영명이는 한글자, 한글자 힘들게 따라읽었다. 가부터 거까지 목이 쉬도록 열글자를 읽고나면 그는 또다시 구령을 쳤다. 《다시!》, 그렇게 하기를 수십번… 1부터 10까지 기억하는데 한달이 걸리고 언필 하나 바로 쥐는데 열흘이 걸렸다니 평이나 다름없는 영명이의 기억세포에 가갸표의 백수십개 글자와 수십개의 단어를 꿈들여 새겨넣으며 우리의 주인공이 흘린 땀은 과연 몇동이나 되였을것인가.

영명이는 《아버지》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였다. 아침출근시간이면 영명이는 병원현관문밖에 서서 어머니와도 같고 학교선생님과도 같은 최순옥동무를 목을 빼들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그의 모습이 착 보이는 순간부터 영명이는 그가 20개의 계단을 다 올라 현관앞에 이를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싶이 웨쳤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영명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발음한 첫 문장이였고 부모도 혈육도 아닌 보건일군에게 터친 첫인사였다. 석달만에 부모조차 깜짝 놀랄 새 모습으로 활개치며 병원문을 나선것이 이제 룡산땅의 영명이뿐이였으랴.

12년세월 언어장애와 제가끔 노는 팔다리때문에 문밖에도 나서기 주저했던 은파땅의 경실이, 로라스케트가 너무도 타고싶어서 늘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자군 했다는 그 소녀가 되원하던 날 마치도 오래동안 숙련해온듯이 로라스케트를 척 신고 단숨에 씽씽 손저으며 달려나갈 때 최순옥동무의 가슴은 얼마나 벅차올랐던가.

얼굴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달라져 꽃송이처럼 에뻐진 경실이가 부르는 노래 《불타는 소원》을 들은 세계보건기구의 20여개 나라 40여명의 외국인대표들은 선뜻 밀어지지 않는 놀라운 치료성과앞에서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회주의조선의 전통의학이 제일이라고!

그들에게 최순옥원장은 《우리 나라의 약초와 우리 식의 전통치료법으로 우리 인민들의 병을 치료하라는것은 이미 수십년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보건일군들에게 가르쳐주신 병치료의 비방입니다.》라고 떳떳이 말해주었다.

룡산땅에는 태어나는 애기로부터 고령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최순옥동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마도 리병원 의사가 제일 많이 걷는 길은 왕진길일것이다.

다른 일에는 래일 하자요가 있을수 있지만 왕진길에는 래일 가자요, 못 가겠어요가 있을수 없다. 앓아누웠다가도 최순옥동무는 환자라는 말만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군 하였다. 신발을 벗을새없이 사는 집초선의 초병처럼 그는 20여년세월 옷을 벗고 편안히 자본적이 없었다. 여름철에 새까맣게 탔던 손과 발은 겨울철이면 시퍼렇게 얼어들군 하였다. 리인민병원에서 끝까지마다에 자리잡고있는 마을들까지의 거리는 보통 왕복 10여리길, 그 길과 이어진 어느 마을, 어느 집에나 최순옥동무의 발자욱이 찍혀져있다.

《우리 령감이 마지막으로 눈이라도 한번 떠봤으면 해서 다 기운줄 알지만 선생님을 찾았어요.》 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깊은 밤 얼어드는 산골골, 진창길을 헤치며 절골까지 달려간적도 있었다.

경각에 이르렀던 환자가 열흘만에는 문밖출입을 하게 되였다. 그러나 순옥동무가 환자의 침상에서 꼬바기 밤을 새우며 한장 또 한장 뜸을 뜰 때 뜻밖의 병으로 앓아누운 어린 아들이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리고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들을 이웃들에게 부탁할지언정 환자의 절은 순간도 떠날수 없다는 리인민병원 원장의 량심의 철칙은 더더욱 알수 없었다.

설날 아침이였다. 《선생님, 우리 설인사를 받아주시우.》 하며 마을로인들이 최순옥원장의 집으로 줄지어 들어섰다. 손자, 자식들에게서 세배도 받기 전에 설인사를 먼저 하자고 찾아왔다는 로인들앞에서 몸둘바를 몰라하는 최순옥동무에게 로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야 제일 웃사람이 바로 원장선생님이지요.》

그 무엇보다 진정에 먼저 감복되는 인민이 마을의 제일 웃자리를 삼가 내드린 리인민병원 원장 최순옥동무에게 나라에서는 공훈의사의 칭호를 안겨주었다. 명의가 될수 있는 남다른 비방이 어디에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흔연히 대답하였다.

《그저 우리 수령님들께서 하라는대로 했을뿐입니다.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고려약을 쓰고 고려치료를 했습니다.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자나깨나 명심했을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자들이 최순옥동무에게 보내여온 편지의 글줄들과 리인민들의 진심에 넘친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다 새삼스럽게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 원장선생님은 어데 가지 말고 꼭 룡산리에 있어야겠는데…》

최순옥동무(오른쪽에서 두번째)

보건일군들에게는 언제나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하는것이 최대의 임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심장에 쪼아박고 가정과 자식우에 환자들을 먼저 떠이고 리의 수백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에 바친 최순옥동무의 진함없는 그 정성의 샘줄기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온 고결한 혁사복무정신에 있었다.

원장선생님, 그 부름속에

다른 토론자들에 비하면 한 일이 너무 적다고만 생각되었던것이다. 대회장에서 돌아온 길로 그는 탑앞에 명세한대로 리병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 뛰여들었다.

중화군에는 모래가 나는 곳이 없었다. 장마철의 어느 일요일 상원군의 어느 한 강에 모래가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순옥동무는 다짜고짜 이웃기관의 화물자동차를 빌려타고 종업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많은 모래무지를 머리우에 통채로 떠이고 오고싶은 욕심에 적재함이 넘치게 실은 모래가 끝내 가파로운 올리막길에서 자동차를 멈추어세웠다. 최순옥동무와 종업원들은 손끝에 피나도록 실었던 그 모래들을 부리우고 자동차가 고개를 넘어간 다음 다시 한줌도 남기지 않고 손바닥으로 쓸어모아 이고지고 날라다 실었다. 그렇게 부리웠다 실었다 하기를 그 몇번…

제 집이라고 한들 그렇게도 이악할수 있겠는가고 보는 사람모두가 혀를 찼다. 속조도 미장도 다 말아하며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병원을 꾸리고싶어 아글타글 뛰고 또 뛰는 그의 열정에 감복되여 군에서는 물론 보건성과 수도의 여러 기관일군들도 자기 일처럼 도와나섰다. 창문도 수지창으로, 침대와 책상, 출입문도 제일 좋은것으로!…

그러던 어느날 최순옥동무는 뜻밖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침상에 눕게 되였다. 그때의 안타깝던 심정을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다.

《일어나야 한다. 우리 동무들이 나를 쳐다보고있지 않는가. 농촌리병원화를 실현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며 이 길에서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 나의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모든 난관을 뚫고 기어이 당창건 60돐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리라.》

뜻깊은 10월 10일 아침, 마침내 그는 새 병원에 《룡산리인민병원》이라는 큼직한 현판을 걸었다. 크기로부터 바탕색, 글자색에 이르기까지 그 몇번도 더 고치며 만든 현판을 떨리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던 최순옥원장은 도로에까지 걸어나갔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 한번이라도 우리 룡산리인민병원을 보아주셨으면, 그러면 이 산골마을에도 인민병원이 일떠섰다고 얼마나 기뻐하실가 하는 생각에 그는 머리우에서 날아에는 제비때마저 무심히 여겨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늘 영광의 그 순간을 그리며 사는 그가 어찌 순간이라도 지체 주저앉을수 있으랴.

병원에 입원하는 산모들에게 지성껏 마련한 물도 공급해주고 목화를 심어 솜과 가제천도 자체로 해결하며 머나먼 북방에까지 달려가 만들어온 전동기들과 초미분쇄기, 성형기 등으로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해마다 나라에 리득을 주게 되였다. 그 나날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고려의학적치료와 신의학적치료를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였으며 그의 뜨거운 인간미와 인정미는 가슴마다 따뜻한 불빛처럼 흘러들어 종업원들은 모두가 한집안식솔이 되였다. 인민의 요구와 부름앞에 무한히 충실하고 헌신적인 최순옥동무의 모습에서 그들은 의술과 정성우에 혁사복무정신이 있으며 인민에 대한 혁사복무는 곧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이라는 삶의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종업원들이 어머니처럼 따르며 사랑하는 우리 원장선생님, 그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집의 메주장까지도 통채로 안고 나오는 제것이란 조금도 아낄줄 모르는 병원의 주부였다.

병원과 이웃하고있는 그의 집엔 늘 문이 걸려있었지만 병원문은 늘 활짝 열려있었다. 밥먹는 시간은 잊어버려도 환자들 주사놓는 시간, 치료시간만은 잊지 않는 그는 밤을 태우기가 일쑤였고 구들은 식어있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안해의 일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의 남편 송영삼동무는 퇴근해서도 환자들에게서 손을 떼지 못하는 안해를 위해 성큼 앞치마를 무르고 부엌으로 내려서군 하였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면 어린 아들이 펄럭펄럭 국수죽을 끓여놓고 어머니를 맞이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의 초침소리로 보건일군의 혁명적책임감을 더욱 다지며 걸어온 그의 왕진길은 말없는 이런 정에 받들려 20여년세월 한분새, 한걸음새로 이어져왔다.

그 길에서 아버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영예군인 최순옥동무가 세 자식의 아버지가 되였으며 영영 앞을 보지 못할번 했던 아이들이 안경을 벗고 다 죽은것이나 다름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청춘을 얻어 혁명초소에 서게 되였다. 남편에게 유언을 남기던 산모가 떡들같은 아들까지 받아안고 감격에 흐느끼며 룡산리인민병원의 자격으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할 때, 온 나라가 찾아오는 병원으로 떠받들릴 때 최순옥동무의 가슴은 얼마나 행복으로 달아올랐던가.

나약해질세라 떠밀어주고 남모르게 바쳐 땀도 보석처럼 빛내여주고 남보르게 이악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인민이 존경하는 진짜 애기애국자로 살던 나날에 그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인간에 대한 헌신적사랑을 직업화한 보건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본태를 비쳐주는 거울과도 같다. 정성이란 말은커녕 진정이나 진심이라는 례사로운 말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자본주의사회에서야 어찌 산골농촌에 세상사람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병원이 일떠설수 있으며 그 어떤 높은 학위학직보다 우리 원장선생님이라는 부름을 더 소중한 칭호로 안고 사는 참된 보건일군이 태여날수 있겠는가.

우리는 《룡산리인민병원》이라는 일곱글자가 빛나는 현판앞에서 최순옥동무의 수십년세월의 발자욱이 무수히 찍혀졌을 도로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홀로 왕진의 발걸, 새벽길을 걸을 때면 그는 한참이나 도로에 서있군 했다고 한다.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발걸을 가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문득 탔리던 야전차를 멈추시고 동문 누구요? 하고 물으시면 《룡산리인민병원 원장입니다.》라고 대답을 올리고 어디 갔다오는 길이요? 라고 하시면 《왕진갔다 오는 길입니다.》라고 대답올리리라고 외우고 또 외우며…

인민을 요람속에 잠재우시고 먼길을 떠나시던 우리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눈빛과도 같이,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청사의 불빛과도 같이 산골마을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행복의 밝은 빛을 부려주는 룡산리인민병원의 불빛!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들어 어제도 오늘도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는 최순옥동무의 지극한 사랑이 내뿜는 정성의 열원이 아니겠는가.

룡산리인민병원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당 제5차대회에서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과업을 받들어 아버지가 해마다 정히 등록하던 기록장과 함께 룡산리인민병원의 70일전투기록장, 유훈관철의 자랑스러운 기록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경축광장으로 들어서는 인민의 참된 보건일군 최순옥원장의 모습이 선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조 향 선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먼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자립적국방공업의 초행길을 전투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강위력한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은 만고의 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들은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승리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가겠다.

축하단은 이밖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육아원, 애육원,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을 참관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평천혁명사적지 참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남부수단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3일 쌀바 키이르 마야르디트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쌀바 키이르 마야르디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남부수단과 조선사이의 친선적이고 훌륭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51돐에 즈음하여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을 행복의 꽃수레에 태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온정속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후대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경공업발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책임을 다해간다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진군길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있는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이 시각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70일전투장들에서는 전선시간의 한초한초가 흘러가고있다.

점덕과 룡양, 대흥의 로동계급의 투쟁성과에 화답하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새겨가는 이들의 투쟁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놀라운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비약의 나래를 펴고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70일전투기록장에 충정의 실적을 새겨가며 생산정상화와 국산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짚는 이곳 로동계급의 자랑찬 투쟁성과는 래일의 더 큰 승리를 기약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위훈창조의 앞장에 선 야전형의 지휘성원들

단천제련소에서

총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벌어지고있는 단천제련소에 가면 기적과 위훈에 대한 투쟁소식을 들을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들에 만가동, 만부하!

매일 계획을 110%이상 해제끼 70일전투목표의 98%도달, 음극아연생산 최고기록돌파!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피줄을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를 탄 기세로 보람찬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이른아침마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 거리를 들었다놓는 기동예술선동대의 휘주악소리, 장엄하게 굽이치는 70일전투참전자들의 대오, 그 맨 앞장에서 책임일군들이 붉은기를 추켜들고나간다.

당비서 박춘선, 기사장 김성태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와 참모부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현장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며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여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유가금속분공장 산화아연직장 2호회전로보수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로가 식기를 기다릴새 없이 18시간동안의 철야전투를 벌리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화벽돌이 뻘어져 작업을 멈추었다.

로보수가 지체된다면 결의목표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바로 이때 전날 밤에 와서 현장을 료해하고 돌아갔던 리상수지배인이 수십의 내화벽돌과 철판을 한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다.

뜻밖의 일에 모두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지배인의 손을 뜨겁게 그러잡았다.

지배인은 로동자들과 함께 내화벽돌을 부리고 로안에 들어가 축로작업까지 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그날중으로 로보수를 끝내고 불을 지피였다.

어느날 새벽 4시 김성태기사장이 전해조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전해조당 전류손실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 하루 음극아연생산실적을 130%이상 올릴수 있게 하였고 다음날 밤에는 또 올리섬유직장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수입에 의존하던 침윤제를 국산화할수 있는 방도도 찾아냈다.

기사장은 이렇게 생산현장들에서 걸린 문제를 즉시에 풀어주군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종합지령실에서부터 원료장, 전해직장, 조액직장, 배소로직장 그리고 변전소에 이르기까지 낮에 밤을 이어 생산전반을 장악지휘해나가는 부기사장 리철학동무, 년로한 몸이지만 전반적인 전력계통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전기자동화과 과장 전병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전투의 앞장에 서있다.

전투목표를 한달이상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결사전에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직장적인 계획을 매일 150%이상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는 자동화직장 직장장 리광동무, 언제나 앞채를 메고 절린 고리를 솟선 풀어나가면서 대오를 이끌고있는 조액직장 직장장 리현모동무와 전해직장 직장장 심준규동무…

돌파구는 누가 먼저 열어야 하는가? 그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다!

자신들에게 스스로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투신하는 이런 일군들이 기관차가 되여 대오를 이끌어나가기에 제련소에서는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격전의 분분초초가 흐른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광산설비생산기지로 강화발전된 단천광산기계공장의 70일전투장이다.

《모두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당 제7차대회》, 《승리자의 대회》라는 구호와 표어들, 수많은 붉은기들로 꽉 들어찬 전투현장은 말그대로 대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청년조기직장에 들어서니 어러 기대를 맡아 돌리는 작업반장 김철수동무의 열기띤 모습이 보인다.

선반과 대형치절반, 소형치절반 이렇게 3대의 기대를 혼자서 돌리는 그의 동작은 나이에 비해 매우 민첩하다. 그는 오늘 계획수행도 250%계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70일전투일력판에 잠간 시선을 주는 그의 눈빛은 용암처럼 이글거린다. 단천지구에서 으뜸가는 선반공인 그는 35년동안 선반공으로 일하여온다고 한다.

이 동무만이 아닌 치절공, 선반공들의 날랜 일솜씨에 의해 여러 규격의 치차들과 각종 부속품들이 생산되고 조립작업반 전투원들은 넘겨받은 부분품들을 잠간사이에 조립해치운다.

《호르륵—》,

호각신호가 울리자 천정기중기가 조립된 광차, 전차들을 능숙 들어 련속 출하장으로 옮겨놓는다.

혁신의 불길은 대형가공직장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안고 오늘도 70일전투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는 치절공 최경준동무가 마광기치차이 발을 붙이 번쩍 나게 깎아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아주신 영광의 기대를 언제나 자기의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하며 혁신을 일으키는 그는 직장로동자들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그의 옆에서는 용접공 문영준동무를 비롯한 여러 전투원들의 마광기장입덮개와 각종 구조물들에 대한 용접작업이 한창이다. 용접불꽃을 드세차게 날리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그들의 열띤 작업모습이 볼만 하다.

총정의 70일전투목표를 140%이상 넘쳐 수행한 기세로 보람한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공장의 로동계급.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열풍속에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이들의 높은 정신력과 투쟁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기마수와 드높은 실적

단천시약공장에서

기적창조의 불씨

《공장책임일군들을 만나려면 새로운 시약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접수원처녀가 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건설현장으로 향하였다. 마지막설비조립을 마무리하는 전투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누가 일군이고 누가 로동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찬 경제선동에 힘을 얻으며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마지막설비조립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녀성들은 도색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해내야 한다며 첫삽을 박은 공장책임일군들, 언제나 이신작칙으로 어렵고 힘든 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그들의 모습은 종업원모두를 시약생산공정의 국산화투쟁에로 부르는 말없는 돌격나팔소리였다.

그처럼 방대한 과제를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끼고 이제는 마지막결승주로에 들어선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실려있었다.

이곳뿐이 아닌 생산현장의 그 어디서나 발휘되는 공장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야말로 대중을 70일전투철야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기적창조의 불씨, 돌격나팔소리인것이다.

지배인의 최전방초소

공장의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때는 시약생산을 위한 원료가 긴장한 때이다. 원료를 먼곳에서 날라오다나니 빈번히 이런 일들이 생기군 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자 모두가 원료수송문제부터 마음쓰게 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원료가 있어야 생산을 다그칠수 있었고 생산한 부선시약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광산들이 자기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었던것이다.

70일전투승리의 담보는 첫째도 둘째도 원료수송이다. 이런 각오를 안고 지배인 현기남동무는 원료수송을 자기가 직접 맡아나섰다.

공장전반사업을 책임진 지배인의 사업부담으로 보아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일군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70일전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최전방초소가 바로 수송천구입니다.》

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며 경영활동전반을 틀어쥐고 지휘하는 야전형의 일군이 있어 시약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리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7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단천마그네샤공장의 로동계급이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분탄연소에 의한 경소마그네샤 생산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공장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마그네사이트분광을 대량처리할수 있는 회전로의 운영을 위한 수년간의 시험과정을 마치고 얼마전 수십m전로에 불을 지펴 미분탄연소에 의한 경소마그네샤생산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난 시기 공장의 수직로들에서는 덩어리광석만 처리할수 있었으며 중유나 콕스와 같은 수입연료에 의거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속에 깊이 간직한 공장로동계급은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어있는 무연탄으로 경소마그네샤를 생산하여 수입연료의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것을 결의해나섰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인 남창연, 한창선동무들은 회전로경소직장 일군들과 전투원들속에 들어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경소마그네샤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려나갔다.

이에 고무된 현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실장 최영남동무와 서로의 지혜를 합치면서 주야전투를 벌리며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공장로동계급은 마침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설비로 얼마든지 경소마그네샤를 쌍쌍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완전히 확립하였다.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는 결코 필요없이 내버려지던 분광을 처리한다는데만 그 의의가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마그네사이트와 무연탄을 가지고 경소마그네샤를 쌍쌍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공장로동계급은 지금 생산적앙양의 불길높이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을 반영한 우표들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과학기술전당을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들을 창작발행하였다.

묶음전지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행마루로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과학의 섬 속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주체적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의 전경을 담고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중심에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상징탑을 형상한 개별우표는 당의 령도밑에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주체조선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전국철도운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철도운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룡해운성 해운과학연구소, 평양철도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현장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는 1분과(건설), 2분과(기계), 3분과(전기, 자동화, 정보), 4분과(경제, 운영)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철도운수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와 룡해운부문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18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기관차사령절실재택을 위한 련관규칙추출방법》, 《제도전차전기부분 종합시험대》, 《구간이음목없는철길의 기술관리에 대한 연구》, 《림성측정기구에 의한 콩크리트세기검사기술》을 비롯한 많은 론문들이 나라의 운수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기간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의 발전추세와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함께 철도과학분원에서 출품한 성과자료들과 전시물들에 대한 참관도 진행되였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발표회는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등 나라의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예술단들이 떠나갔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미조선인예술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왕재산예술단 개성에서 공연

지방순회공연으로 철야진군길에 떨쳐나선 70일전투참전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 왕재산예술단이 20일부터 개성시에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경음악과 대중가요,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녀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2중창 《인정의 세계》 등 목록들에서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의 5월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갈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젖어들게 하는 녀성독창과 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분렬을 그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게 하였으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숙원을 반드시 성취할 굳은 신념을 간직하게 하였다.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경음악 《더 높이 더 빨리》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오늘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갈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민족무용 《자랑하세 우리 민족옷》, 민속무용 《아장춤》, 타프춤 《명랑한 취사병》, 《청춘시절》을 비롯한 우아하고 매혹적인 무용작품들도 올랐다.

무용 《명령만 내리시라》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극악무도한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을 족탕쳐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필적의 의지를 분계연선도시 인민들의 가슴속에 더욱 억세게 심어주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행세를 격조높이 구가한 공연은 종장 《천리라도 만리라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구호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전례없는 교육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커다란 결실을 안아왔다.

윤남동무를 비롯한 학부일군들과 교원들은 외국어교육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훌륭한 교수방법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길남희교원은 대학일반과 전공원서번역단계의 외국어교육에서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훌륭히 완성하여 학생들의 전공원서번역능력과 영어듣기 및 입말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하고있다.

김경남교원의 콤퓨터지원체계프로그람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문법지식습득정형과 그 활용능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교수방법, 정경주교원의 대비분석을 통해서 회화표현을 정확히 습득할 용시키는 교수방법, 허천교원의 표작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고 분석능력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비롯하여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이 많이 창조되였다.

특히 한영준교원은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신속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외국어소유판정 및 시험지원체계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더욱더 고조시키고있다.

학부들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진행되는 전공지식과 관련한 외국어발표경연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외국어발표경연을 학생들이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도 뛰여들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마당으로 되게 할 높은 목표를 세운 강좌장 리무일동무는 김수련동무를 비롯한 강좌교원들과 토론을 거듭하면서 경연준비를 위한 철야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본선경연이 진행될 때에는 학생들을 학부에 판게 없이 참가시켜 질문과 론평의 방법으로 경연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지금 이 경연은 학부들을 돌면서 진행되고있는데 학생들과 일군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좌장 주권우동무는 70일전투기간 강좌의 모든 교원들이 한가지이상의 새 교수방법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교원들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공실습실을 본보기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강좌에서는 전공실습실을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이곳에서 번역실습, 통역실습을 지도교원과 실지정황속에서처럼 실감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리창식, 조영빈, 리옥심교원들을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콤퓨터를 통하여 대화련습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 원격영어학습지원체계프로그람개발사업을 결속하도록 하였다.

학부에서는 이외에도 교수의 예습공정에서 지능형손전화기와 한형콤퓨터를 리용하여 학생들의 과제수행정형을 검열평가하는 영어시험지원체계프로그람 등을 개발하였다.

학부의 연구집단은 콤퓨터과학대학과 힘을 합쳐 빠른 시일안에 과학기술전당에 도조기계번역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데 이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그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려 번역정확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당의 방대한 다매체련결콤번역사업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여 사람들이 대중과학상식들을 비롯한 새 지식들을 콤퓨터를 통하여 더 많이 얻람할수 있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통일위업계승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불멸의 공적

조국통일위업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민족의 분렬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통일운동실천에 철저히 구현할 때만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온 겨레의 간절한 통일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사명으로, 생명선으로 내세우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의지를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새겨안으시고 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생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있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문제인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사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수십성상 험난한 시련의 길을 앞장서 헤쳐오시였다. 오늘 우리 겨레가 장군님을 그리며 뜨겁게 돌이켜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결사의 각오를 안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신 불멸의 로고와 업적이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빛나게 계승완성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만능의 보검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와 시대앞에,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가장 위대한 공적중의 하나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와 업적, 숭고한 애국의 뜻이 집대성되여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온 겨레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1990년대 민족의 대국상이후에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조국통일운동이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고귀한 통일애국유산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겨레의 가슴마다에 드놀지 않는 자주통일의 억센 기둥으로 세워주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에 일관하게 구현해오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글줄마다에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온 겨레를 단합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력사와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와 덕망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하기에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민족애, 무한대한 도량과 포옹력에 감복을 금치 못한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 지어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인사들도 민족단합의 길에서 참된 애국을 찾으며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고 통일위업실현에 성실한 땀과 지성을 바칠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환희를 안아온 6.15를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대의 분수령에서 펼쳐주신 6.15통일시대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조국통일위업을 령도하시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 방안이 집대성되여있다. 선언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으로서 조국통일3대헌장의 가장 철저한 구현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이자 곧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의 실현으로 된다. 하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온 겨레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주, 민족단합을 위한 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이룩하신 특기할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받들어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절세의 위인,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은 오로지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는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 겨레에게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령도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있다는 환희와 격정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선대수령들과 똑같으신 인민적지도자》, 《우리 민족의 중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완성은 확정적이다!》라고 격정을 터치면서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통일애국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으로 영생하고 계시며 오늘도 조국통일운동의 전두에서 온 겨레를 승리에로 이끄신다.

우리 겨레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서 통일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 확고한 결심은 머지않아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새 력사를 반드시 펼쳐놓게 될것이다.

라 설 하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흠모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최고사령관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출중한 령도실력으로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흠모의 목소리가 남녘의 하늘가를 진감하고있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은제1비서의 뜻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로작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해나가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은제1비서께서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척같이 심어주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한민족복지재단》의 한 성원은 오늘날 이북이 떠승만을 아로새기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세인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민중사랑의 정치가 위대하기때문이라고 토로하였다.

한 통일인사는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어 우리 겨레가 세기를 이어 념원해온 리상국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천만대적을 휘여잡으며 조국의 안녕과 존엄을 억척으로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도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선시찰로 반미대결전과 조국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은 그이를 《백두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번화발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며 《김정은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특색있는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북의 면모가 더욱 일신할것으로 보인다.》, 《서방이 아직도 〈북체제붕괴〉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인터네트신문 《서프라이즈》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통일강성국가의 새 아침은 기어이 밝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 진행

【아바나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약 1 0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꾸바혁명의 사회주의성격을 선포한 때로부터 55돐을 맞는 력사적인 날에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된데 대해 언급하고 꾸바공산당이 당사업과 근로단체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적이며 자주적인 꾸바에서 기본생산수단에 대한 전체 인민의 소유는 국가경제와 사회경제체제의 기본형태로 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에는 인민들의 단결을 대표하고 담보하는 자랑스러운 유일당이 있으며 이 당을 기본전략적무기로 하여 혁명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형태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혁명을 보위하고있다, 이것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릴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정치사상사업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잘하고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 적대시정책과 압박, 신자유주의사상을 주입시키려는 책동, 꾸바혁명을 반대하는 사상교란전략에 의한 자본주의복귀시도 등은 사상사업이 안고있는 심각한 도전들이라고 밝혔다.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소부르죠아사상을 되살리려는 시도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평화와 사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꾸바공산당의 지도적역할은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문제에 언급하여 그는 만약 침략자들이 꾸바를 타고앉으려 한다면 수백만의 꾸바인민들이 떨쳐일어나 원쑤와 끝까지 맞서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두리에 뭉친 인민들의 단결, 열렬한 애국심, 정치문화는 꾸바인민들의 혁명사상을 좀먹는 그 어떤 책동도 짓부실수 있는 방패로 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국가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꾸바정부의 립장과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들에 대한 지지성원을 재확인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당과 정부들과의 경험을 계속 교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패권적지위를 내리먹이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있는데 대해 까밝혔다.

미국의 강탈론과 전략적자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나토의 침략책동과 국제테로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확대되고있는 전쟁들, 로비, 중미사이 모순의 격화, 중동에서 벌어지고있는 헤아릴수 없는 전란의 위기 등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세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꾸바의 외교정책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꾸바공산당은 이 원칙에 충실할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당대회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부흥하는 사회주의꾸바를 건설하도록 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보고와 2011—2015년 인민경제발전 개요, 2030년까지의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초안, 사회주의경제 및 사회발전모델 개념초안들을 비롯한 사회, 경제정책로선을 토의하고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라울 까스뜨로 루쓰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호세 라몬 마차도 벤뚜라가 제2비서로 다시 선거되였다.

민심에 역행하는 역적무리들은 추호의 용서없이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0대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패당은 집권후 반인민적악정과 《유신》파쑈독재부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일삼아온 추악한 행적과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선거를 박근혜에 대한 격노한 민심이 폭발한 《무혈선거혁명》으로 평하면서 청와대안주인은 더이상 맥을 출수 없는 산송장, 《식물대통령》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고 신랄히 조소하고있다.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는 박근혜가 집권 3년간 력대 통치배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반역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완전한 비림과 저주를 받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축도판이였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저들의 반역정책이 선거참패와 무판한듯이 변명하면서 홍파산의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난 18일 괴뢰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 나타난 박근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일하는 국회》가 되여달라느니, 《중단없는 개혁추진》이니 뭐니 하고 철면피하게 놀아댔다.

그런가 하면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조선반도를 핵전쟁발발의 최극단에 이르게 한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할 대신 《북의 돌발적도발》에 대비한 《여야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헤쳐대면서 반공화국대결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할 교활한 속내도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한편 박근혜는 초상집이 된 《새누리당》안의 심복들을 내세워 제년이 뽑아낸 무소속당선자들을 긁어모아 제1당의 지위를 강탈해보려고 날뛰고있는가 하면 괴뢰검찰을 사촉하여 선거법위반조사놀음을 벌리면서 야당소속 당선자들을 불아내고 민주개혁세력을 위축시켜보려고 음흉하게 획동하고있다.

박근혜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고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는 《선거의 녀왕》이라는 환각에 빠져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옷을 걸치고 《야당을 심판하라.》느니, 《국회를 물갈이하라.》느니 뭐니 하며 여기저기를 돌아쳤으며 전례없는 《북풍》조작놀음까지 벌리면서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때문에 내외여론은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패배이기 전에 박근혜의 오만과 불통, 무능과 독선에 단호한 징벌을 내린것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낄줄 알고 초보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 골백번 엎드려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꼬리 3년이 되여도 황모 못된다고 민심의 심판을 받고 만신창이 된 지금에 와서도 유독 박근혜만은 청와대안방에 틀어박혀 남조선민심이 배척하고 경멸하는 반역정책들을 계속 붙들고 살길을 열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더우기 박근혜패당이 극악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고 민족의 머리우에 더욱 위험천만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민심은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면서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박근혜패당의 동족대결정책에 준엄한 사망선고를 내리였다.

그것은 박근혜패당의 손발이 되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졸개들이 줄줄이 락선되고 보수패당속에서까지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떠드는 바람에 보수층민심까지 등을 돌렸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이 다 반대하는 대결정책을 한사코 고집하고있으니 박근혜야말로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경멸하고 저주하는지 모르는 역겨운 인간오작품, 온 겨레에게 화난만을 몰아오는 살기띤 마귀라고 해야 할것이다.

제반 사실은 《유신》파쑈와 동족대결에 미쳐대로 미쳐 반인민적악정과 반통일대결책동을 일삼는 박근혜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에서 말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북남관계는 더욱더 예측할수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고 온 겨레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민심에 도전하면서 천하의 악행을 덧쌓고있는 박근혜패당의 독선과 독단, 전횡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동족대결을 극대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험천만한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특등재앙거리인 박근혜패당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파죽지세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박근혜패당은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속에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21일
평 양

썩어빠진 미국사회가 빚어낸 비극적현실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표방하는 미국의 정객들이 입만 벌리면 넘불처럼 외워대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근로대중의 생활개선》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처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있다.

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지금 미국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흑대형중독사건과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개싸움마당을 통하여 찾아보기로 하자.

얼마전 한 소아과의사에 의해 미시간주의 플린트시 주민들의 대부분이 연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였다. 후에 그 원인이 플린트시 주민들이 리용하고있는 먹는물과 련관되여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원래 플린트시는 데트로이트시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그곳에 있는 휴련호의 물을 먹는물로 리용하여왔다.

그런데 시당국자들은 재정문제를 구실로 몇년전에 먹는물원천을 플린트시에서 흐르는 강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강물은 심히 오염되고 부식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사실상 먹는물로 리용할수 없었다. 미시간주와 플린트시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것처럼 시치미를 떼며 강물을 그대로 리용하게 하였다. 그들에게는 대부분이 흑인이고 약 40%가 빈곤층에 속하는 플린트시 주민들의 생명보다 몇푼의 돈이 더 귀중했던것이다.

결과 부식성이 강한 강물에 의하여 수도관들은 삭아서 녹이 쓸게 되였다. 문제는 수도관들의 대부분에 연성분이 함유되여있었다는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녹과 함께 연성분까지 포함된 물을 오랜 기간 먹는물로 사용하였으며 하여 오늘과 같은 심각한 연중독사고가 초래되게 되였다.

사실 먹는물원천을 바꾼지 얼마 안되여 주민들속에서 수도물의 새김과 냄새, 맛 등이 이상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여러차례 소송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미시간주와 플린트시의 당국자들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벌짓을 다하였다. 이전 플린트시 시장은 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직접 수도물을 마시는 추태까지 부리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비발치듯 하자 그제서야 정부는 먹는물원천을 다시 바꾼다, 주민들에게 샘물과 려과용도구 등을 나누어준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더우기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사건발생직후 책임있는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시급히 강구되여야 하겠으나 미국의 정치권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비렬한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있는것이다.

미국회 하원에서는 사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 치렬한 말싸움질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소속인 미시간주 지사를, 공화당은 오바마행정부산하인 미련방환경보호국 장관을 지명공격하며 그들에게 기본책임이 있다고 고아댔다. 다음기 대통령출마를 위해 미국전역을 돌아치며 선거활동을 벌리고있는 각 당의 후보들도 플린트시사건에 대해 매우 《격분》해하면서 경쟁자들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일이 이렇게 흐르다보니 형식상의 자금지원안마저도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의견불일치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치를 한다는자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돈과 세력다툼에만 환장이 되여 돌아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실상이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제도하에서 평범한 근로대중의 생활상요구가 무시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에서 앞으로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근로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근로대중이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 모든 악의 근원인 황금만능의 사회정치제도를 뒤집어엎는 길뿐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이란에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 진행

이란의 수도에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하싼 루하니대통령과 정부성원들, 고위군사지휘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는 각 군종, 병종 종대들의 행진이 진행되였으며 전투기, 직승기, 무인항공기, 미싸일, 땅크, 전술장갑차량, 반항공체계들을 비롯하여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현대적인 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이날 나라의 다른 주요도시들에서도 열병식들이 있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호소

딴자니아대통령 존 마구풀리가 15일 동아프리카공동체성원국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공동체성원국들이 통합을 실현하려는 목적은 무역과 투자, 하부구조건설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다그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하게 번져지는 식료품안전보장문제

국제적으로 오염된 식료품으로 인해 장질병에 걸린 환자들중 40%이상이 5살미만 어린이들이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불량식료품에는 해로운 세균과 비루스, 기생충,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설사로부터 암에 이르는 200여가지의 질병을 일으킬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안전성이 결여된 식료품이 빚어낸 비극적사건들을 한두번만 목격하지 않았다.

2008년 일본에서는 농약과 곰팽이에 오염된 공업용쌀을 식품으로 부정판매한 사건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공업용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애기용우유를 먹은 후과로 콩팥이 손상되여 6명의 애기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 8월 미국에서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5억 5 000만알의 닭알이 발견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이 나라 서부의 한 닭목장에서 쓰는 사료가 발암성물질인 디옥신에 오염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결과 4 700여개의 농장을 림시로 폐쇄하고 오염된 목장에서 생산된 고기와 알의 판매가 금지되였다.

2012년에 체스꼬에서는 수십명이 메타놀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2013년 유럽을 휩쓴 《말고기소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유럽의 시장들에서는 소고기제품에 교묘하게 말고기를 섞어 만든 불량식품이 나돌아 말썽을 일으켰다.

식료품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는 사실앞에서 누구나 다시금 똑똑히 새겨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식료품의 안전보장문제가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과 발전을 떠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량식료품의 생산과 판매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돈에 미친자들이 식료품생산과 판매를 좋은 돈벌이공간으로 악용하고있는데 있다. 최근년간에는 마약제조와 밀매에 종사하던 범죄자들이 비법적인 가짜식료품생산과 판매에로 방향전환하고있다. 범죄자들의 가짜식료품생산, 판매방식은 마약제조, 밀매방식과 비슷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하고 공식적인 은행구좌도 가지고있다. 불량식료품제조와 판매가 하나의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 범죄령역에로 확대되고있는 증거라고 볼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불량식료품들이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범위에서 범람하고있는것이 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이것은 식료품안전을 위해 국제적인 범적통제와 협조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식료품생산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식료품의 안전과 질을 담보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현재 적지 않은 나라의 식료품제조업체들에서 극히 적은 량을 써야 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할 첨가제들을 람용하고있다. 사용이 금지되고 또 위험하기 그지없는 물질들이 지금껏 많은 종류의 식품들에서 발견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식료품에 포함된 첨가제들의 정확한 명칭과 그 량을 상표에 밝히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제정하는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식료품안전보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불량식료품제조업체들과 그 장본인들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는 법만 하여도 20가지나 되는 나라도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불량식료품을 제조한 업체에는 막대한 배상금을, 주범에게는 최고 10년간의 감금형을 언도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식료품안전감독체계에 민간조직과 개인들을 적극 동원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는 470명의 식료품안전감독원들이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과학적인 통제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것도 불량식료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자국의 일부 식당들에서 료리할 때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페유를 쓰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페유와 식용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유럽의 일부 대학들에는 자체의 식료품안전연구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식료품안전의 우환거리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불량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식료품안전보장의 근본방도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번져지는 식료품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같은것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범죄자들을 낳는 황금만능의 부패한 사회제도를 들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미국인들속에서 부패한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 고조

미국의 워싱톤에서 11일 부패한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600명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국회의사당앞에 모인 시위자들은 대통령후보로 나선자들이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면서 나라에서 금전정치를 끝장내고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할것을 미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한압에 광분하던 끝에 400여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 *

미국의 워싱톤에서 17일 나라의 부패한 금전정치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의사당앞에서 벌어진 집회에는 시민단체성원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색을대로 씌운 금전정치를 탕장 걷어치우고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보장할것을 탕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

미국인들속에서 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16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0명중 8명이 권력가들과 특권계층들이 독판치는 부패한 제도에 환멸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6106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